■ 운전면허 간소화 첫 날 시험장 가 보니

# "20만원 싸진다더니 되레 부담 늘어날 판"

자동차 면허 응시자들의 면허 취득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경찰청이 교육시간 단축과 면허시험장 도로주행연습 폐지 등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을 대폭 간소화 했지만 되레 응시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불합격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운전학원이 시간당 추가 수강료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 수강료 4~5만원 인하
### 추가 비용은 3배 올려
### T자 전면주차 어려워
### 불합격자도 크게 늘듯

24일 광주시내 운전전문학원들에 따르면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기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비용에서 3~7% 가량 인하했다. 그러나 상당수 학원들이 시간당 추가 수강료를 최고 3배 이상 인상해 응시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아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이날 학원에 나온 문채규(52)씨는 "정부에서 학원 수강료가 많이 싸진다고 해서 2개월을 기다려왔는데 과거와 비교해보니 정작 내린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북구 D운전전문학원은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학과·기능·주행 등 수강료 69만원을 받다가 이날부터 4만5천을 인하했으나, 대신 시간당 추가 수강료를 기존 7천500원에서 2만6천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 학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 번 수강료를 납부한 뒤 불합격한 학원생이 없어서 서비스차원으로 적게 받았는데 시험이 바뀌어 불합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간당 추가 수강료를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북구 S운전전문학원도 이날부터 1종 보통수강료를 68만원에서 64만2천원으로 내렸으나, 이는 경찰청이 당초 예상한 수강료 인하폭 20만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일부 운전전문학원이 응시자가 불합격했을 때 받는 추가 시간당 수강료를 대폭 올리면서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응시자들의 주장이다.

1종 보통 기능시험의 경우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2종의 경우 15시간에서 12시간), 주행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수강료는 4~5만원 줄어들지만, 불합격할 경우 이들 시험·주행에 대해 5시간 더 수강하게 되면 비용부담은 10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한 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시험이 대폭 간소화됐어도 기능시험에서 T자 후면주차가 전면주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합격하는 수강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운전면허 기능시험 중 철도건널목과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항목이 폐지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교육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버스 놓쳐도 좋아'** 24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김 선수가 올림픽 역대 최고점수로 1위를 차지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잘했다 김연아"

### 광주·전남 곳곳 열띤 응원전…최고점수에 박수·환호

광주·전남에서도 '피겨 여신' 김연아(20)를 응원하는 열기가 뜨거웠다.

24일 오후 1시 광주 도심이 고요해졌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김연아 선수의 연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TV가 설치된 장소로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광주역 등 공공장소는 물론 사무실, 음식점, 당구장 등 삼삼오오 모여든 지역민들은 2분48초 동안 펼쳐진 김 선수의 뛰어난 연기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종합버스터미널 내 TV 앞에는 이미 낮 12시부터 300여 명이 몰려들어 김 선수의 차례를 기다렸다. 특히 김연아에 앞서 출전한 경쟁자 아사다 마오가 실수없이 연기를 마치자 다소 아쉬워(?)하며 김 선수의 선전을 기원했다.

오후 1시 김 선수가 빙판에 들어선 이후 줄곧 숨을 죽이고 연기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김 선수가 연이어 고난도 점프를 성공하자 다행스런 표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곧이어 김 선수의 점수가 세계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발표되자 대합실에는 박수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광주역 대합실에도 150여명이 모여 김연아 선수의 연기를 지켜봤다.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펼치는 동안 몸짓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한 시민들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점수를 기다렸다.

박성일(45)씨는 "올림픽에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연기를 멋지게 해낸 김연아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아사다 마오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큰 점수 차로 이겨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 주범

### 전체 산불의 18% 차지
### 광주·전남 2년간 9명 숨져

산불 5건 중 약 1건은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 평균 6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523건의 산불 중 논·밭두렁 소각이 전체의 18%(93건)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10년간 총 60명이 숨졌고, 그 중 80% 가량이 70대 이상 고령자였다. 전남지역에서는 2008년 5명, 2009년 3명이 각각 숨졌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영농준비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다 불이 번져 당황한 노인들이 연기에 질식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아무런 효과도 없는 만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봄철(3~5월)에 발생하는 산불은 전체의 64%인 평균 334건으로, 산불 3건 중 2건꼴로 봄에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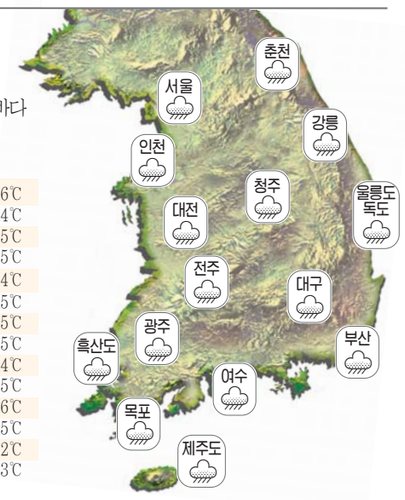
## 오늘 날씨

해뜸 07시 08분 해짐 18시 24분 달뜸 14시 23분 달짐 04시 17분

**선박항해 주의하세요**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다.

| | | |
|---|---|---|
| 광 주 | 흐리고 비 | 14/16℃ |
| 목 포 | 흐리고 비 | 12/14℃ |
| 여 수 | 흐리고 비 | 13/15℃ |
| 완 도 | 흐리고 비 | 13/15℃ |
| 구 례 | 흐리고 비 | 11/14℃ |
| 해 남 | 흐리고 비 | 13/15℃ |
| 장 흥 | 흐리고 비 | 13/15℃ |
| 고 흥 | 흐리고 비 | 13/15℃ |
| 순 천 | 흐리고 비 | 12/14℃ |
| 영 광 | 흐리고 비 | 13/15℃ |
| 진 도 | 흐리고 비 | 14/16℃ |
| 전 주 | 흐리고 비 | 12/15℃ |
| 남 원 | 흐리고 비 | 9/12℃ |
| 흑산도 | 흐리고 비 | 11/13℃ |




| 〈오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2.0~4.0m |
| 먼바다 | 남서~서 | 3.0~4.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2.0~4.0m |
| 먼바다 | 남서~서 | 3.0~4.0m |

| 체감온도 | 동파지수 | 뇌졸중지수 |
|---|---|---|
| 관심 | 낮음 | 낮음 |

| 〈오후〉 바다 | 풍향 | 파고 |
|---|---|---|
| 서해 남부 앞바다 | 남서~서 | 2.0~4.0m |
| 먼바다 | 남서~서 | 3.0~4.0m |
| 남해 서부 앞바다 | 남서~서 | 2.0~4.0m |
| 먼바다 | 남서~서 | 3.0~4.0m |

| | 밀물 | 썰물 |
|---|---|---|
| 목포 | 11:33 23:35 | 04:05 17:22 |
| 여수 | 06:54 19:02 | 13:07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26(금) | 27(토) | 28(일) | 3/1(월) | 2(화) | 3(수)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10/17 | 6/12 | 4/13 | 4/10 | 3/12 | 2/12 |

# 강풍 동반 최고 80㎜ 큰 비

### 광주·전남 기온은 포근

25일 광주·전남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된다.

또 바다의 물결이 높은 가운데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4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의 분포로 비교적 포근하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광주·전남은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24일 예보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의 전남 동부내륙 40~80㎜, 그 밖의 지역은 20~50㎜.

기상청은 강풍을 동반한 이번 비가 2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전 해상에서 2.0~4.0m로 높게 일겠으며, 일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